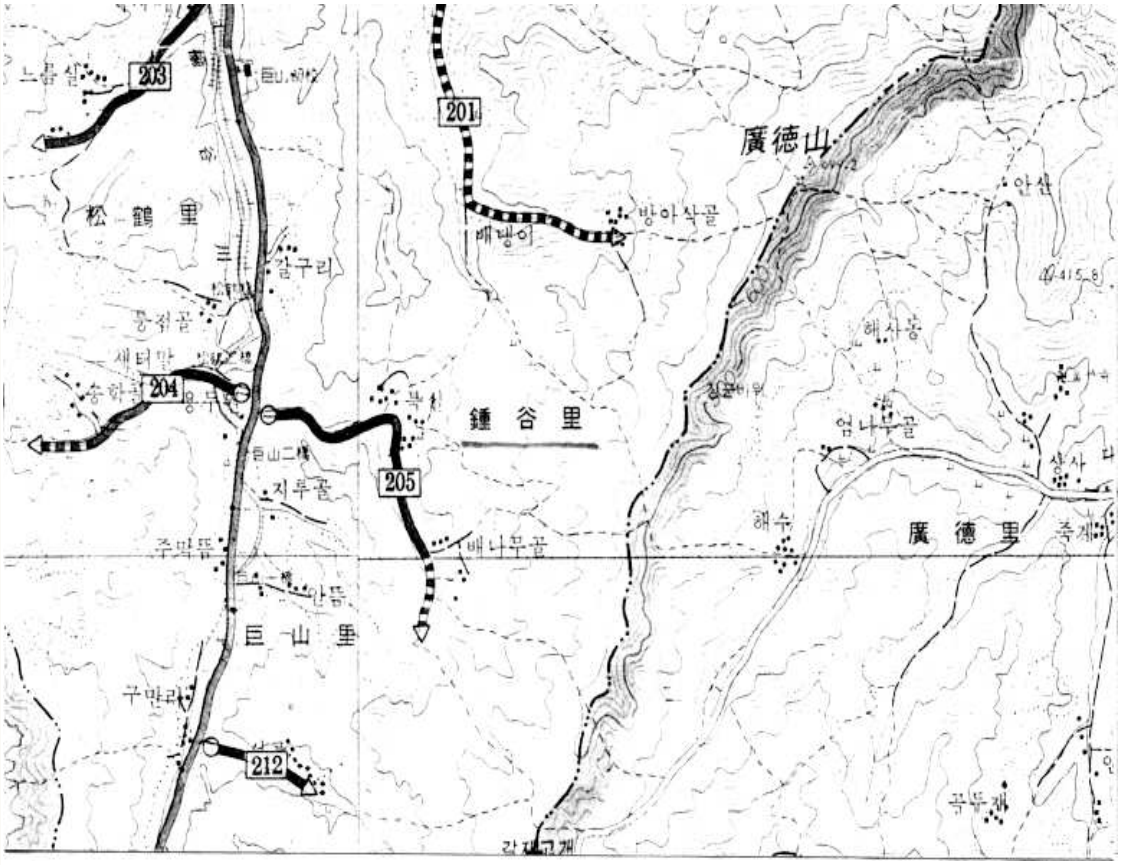
종곡리·鐘谷里

<구연자 : 충남 아산시 송악면 종곡리 현광원씨 (81세)>

종곡리는 송악면의 한 마을로 마을 지형이 북처럼 생겼다해서 종곡 또는 북실로 불리게 되었다. 마을의 총 인구는 107명으로 가구수는 27호이며, 송악면에서 분구가 안된 마을이 두 마을이 있는데 종곡리가 그 중 한 마을이다. 약 89%의 주민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나머지 11%는 모두 공무원이다.

종곡리는 본래 온양군 남상면의 지역으로서,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이목동을 병합하여 종곡리라 하여 아산군 송악면에 편입되었다.

< 종곡리 위치도 >



⊠ 북실마을 (종곡리)

종곡리는 북실마을로 북처럼 생겼다하여 지명으로 불리게 되었고, 아랫북실과 윗북실로 나뉜다. 아랫북실 입구에는 돌장승이 좌우로 세워져 있고, 좀 더 올라가면 윗북실이 나오는데 입구에는 나무로 된 장승이 새끼줄로 묶여 있다. 마을은 시원한 계곡이 있어 자연경관이 매우 수려할뿐더러 몇 년전부터 여름철이면 피서객들이 이곳을 찾아 쉬고 가곤하여 마을사람들이 적지 않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윗북실을 배나무골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배나무가 많이 있었다 하여 배나뭇골이라 불리웠는데 본래 이목동이라 불리었다고 한다.

< 조사당시 종곡리 마을 관련 사진 >

1) 위 치

북실 마을은 위도 36-40-30, 경도 127-00-10인 지역에 위치해 있다. 면소재지에서 39번 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가다보면 왼쪽에 205번 도로가 나오는데 그 도로 입구에서 약 1.1km 떨어진 지점에 자리잡고 있다.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의 마을이 용두원으로 입구에 종곡리라 쓰인 팻말이 있다. 그곳에서부터 한참을 산속으로 들어가야 마을이 나온다.

2) 현 황

북실의 인구는 남자가 57명, 여자가 52명으로 총 107명이며, 총 27호가 살고 있다. 그 중 약 24호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3호는 공무원이다.

- 인구 현황

구 분 마 을 명	계	남	여
북실마을	109명	57명	52명

- 생 업

구 분 마 을 명	계	농 업	공무원
북실마을	100%	89%	11%

마을의 농경지는 논과 밭으로 구분되는데 논 14.3ha, 밭 12.6ha 이루어져 있다. 농기계는

예취기가 가장 많고 경운기, 양수기도 보유하고 있다. 그 외에 나머지 농기계들도 약간 보유하고 있다. 문화시설로는 마을회관 1개소가 있다.

- 농경지 현황

구 분 마 을 명	계	논	밭
북실마을	26.9ha	14.3ha	12.6ha

- 문화 시설

구 분 마 을 명	계	마 을 회 관	기타문화시설
북실마을	1개소	1개	-

성씨별 분포를 보면 신씨가 33%로 가장 많고, 전씨 15%, 현씨 19% 그리고 기타 성씨가 33%이다. 연령분포로는 60대가 가장 많으며, 20대는 매우 적은편이다.

- 성씨별 분포 현황

구 분 마을명	계	신 씨	전 씨	현 씨	기 타
북실마을	27호	9호	4호	5호	9호

- 최고령자

마을의 최고령자는 강 채옥 할머니로 90세이지만 아직도 건강하신 편이다.

3) 자연 경관

마을 주변의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고 마을 오른쪽으로는 약간의 논이 있다. 마을 아래쪽으로는 도로가 있는데 작은 내가 흐르고 있다. 마을은 휴양지로 지정이되 여름이면 많은 피서객들이 이곳을 찾고 있으며, 계곡의 경치가 수려하고 물이 깨끗하여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을 생각된다. 마을입구에는 들어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경건케하는 돌장승과 나무장승이 서있다.

4) 마을의 변천과정

북실은 본래 온양군 남상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이목동을 병합하여 종곡리라 하여 아산군 송악면에 편입되었다.

5) 입 향

마을의 원거인은 배씨로 알려지고 있으며 그 후로 고령 신씨가 들어와 살게 되어 현재까지 신찬승씨가 18대째 살고 있다. 그러니깐 마을의 형성은 서기 1460년경 약 540년 이전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6) 지 명

·북실 : 종곡리의 주된 마을로 지형이 북과 같다 하여 북실이라 함.

·배나뭇골 : 북실 위쪽에 있는 마을. 배나무가 많이 있었다 함.

·양지뜸 : 북실 양지쪽에 있는 마을.

·통미 : 양지뜸 건너쪽에 있는 외딴 산. "사두혈"이라 하는 고령 신씨의 묘지가 있음.

·통미 : 통미산 밑에 있는 마을로 산이 작고 둥글다 하여 통미라 함.

·갈잿골 : 갈재 밑에 있는 골짜기.

·메기바윗골 : 메기바위가 있는 골짜기.

·갈재 : 배나뭇골에서 천원군 광덕면의 광덕리로 넘어가는 높은 고개.

·메기 바위 : 갈잿골 옆에 있는 바위. 모양이 메기와 같음.

·절골 사지 : 절골에 있는 것으로 고려말의 것으로 추정된다.

·백자요지 : 북실마을 밭과 능선이 맞나는 지점에서 그릇 파편들이 많이 발견됨

7) 전 설

北十 산신제를 지내게 된 유래

홍세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산에다 담배를 재배했다고 한다. 그 사람이 장에 갔다와서 그 담배 밭으로 가는데 일꾼이 내려오면서 모든 일을 끝냈으니까 안 올라가도 된다고 말렸지만 고집을 피우며 올라갔는데 호랑이를 만나 고생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을 안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그곳에 쫓아가 간신히 사람을 구하여 내려왔다고 한다. 그러자 그것에 화가난 호랑이가 매일 밤만 되면 마을에 내려와 울음소리를 내어 마을 사람들이 겁에 질려 밖에 나오지를 못했는데, 며칠을 그런일이 계속되자 마을 사람들이 안되겠다 싶어 산신제를 지내게 되었다. 그러자 그 이후로는 호랑이가 내려오는 일은 없었다고 전해진다.

8) 전통놀이 및 대표적 집단행사

이 마을에서는 윗북실과 아랫북실에서 따로 장승제를 지내고 있는데, 본래 아랫 북실 입구에 있는 돌장승도 나무장승으로 되어 있었으나 풍파에 부서지게 되어 마을 사람들끼리 돈을 모아 돌장승으로 다시 세우게 되어 정월 초하루에 장승제를 지내고 있다. 윗북실에는 아직도 나무장승이 세워져 있는데 이곳 역시 정월 초하루에 장승제를 지내는데 저녁에 마을사람들이 모두 모여 지내게 된다. 엄격한 것은 아니지만, 마을사람들은 이날만큼 몸을 깨끗이하고, 정성을 드린다. 장승에 북어를 묶어 놓고, 제사상은 별도로 차리지 않으며, 시루떡과 밤, 대추 만 장승앞에 놓고 간단하게 제를 올리고 마지막에 소지를 올린다. 그리고 원하는 사람들은 장승앞에 절을 하고 소원을 빌기도 한다. 장승제 뿐만아니라 윗북실과 아랫북실이 같은 종곡리라 하여도 따로 산제를 지내고 있는데 대부분 좋은날을 선정 하다보니 같은날 지내는때가 많다고 한다. 음력 10월 열나흘에는 고령 신씨들이 시제를 지내며, 계로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속해있는 대동계와 윗북실과 아랫북실 마을끼리 따로 구성하는 계가 있다고 한다.

9) 특별히 소개할만한 인물

10) 종교단체

마을에 종교단체는 없지만, 오래전부터 이어져 오는 장승제를 볼 때 무속신앙을 중요시 여기는 전형적인 시골마을임을 알수 있다.

11) 공장현황

종곡리에는 산속 마을이라 공장이 전혀 없다.

12) 마을의 특성

마을은 산신제와 장승제를 중요시 하게 여기고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하면 마을에 불길한 일이 생긴다고들 마을 사람들은 믿고 있고 마을 행사를 통해서 주민들의 단합과 화합을 주도하며, 서로 정을 나누어 주는 시골 마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마을이며, 산세가 수려하고 계곡물이 시원하고 깨끗하여 많은 피서객들이 이곳을 찾을 것으로 보여 많은 발전과 변화가 있겠지만, 옛모습은 점점 사라질까 우려된다.